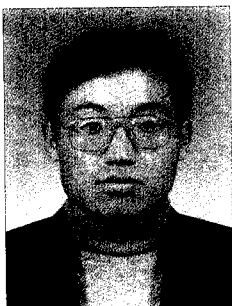




백제문화 연구와 개발의 현주소

서 정 석
(徐程錫)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 연구원



I. 머리말

II. 백제사의 현황

III. 백제유적 조사의 현황

IV.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

V. 맺음말

I. 머리말

다 아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의 문화는 우리의 민족문화의 틀이 형성되던 시기의 문화다. 삼국시대를 통해서 민족문화의 공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이어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 등 통일왕조가 이

어지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민족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백제문화는 신라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두 축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신라문화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롭게 일기 시작하는 백제문화권 개발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진정한 민족문화의 원형을 찾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꺾이나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1977년경부터 시작되었다. 1977년부터 3개 년간에 걸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신라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달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문화권의 범위, 개발사업의 방향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지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 고자 계획되어 있었으나,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 픽을 위해서 서울지구가 古都整備事業이라는 이



름으로 집중 투자된데 비해 나머지 지역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 후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반대로 서울을 제외한 공주·부여 중심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서울은 이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아주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가 신라사나 신라문화와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그 틀, 그 방향을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백제문화권의 설정과 개발방향은 정확한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화권의 설정과 개발은 다른 사업과 달리 그 문화의 실체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다지는 것이 기본 목적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처음 공시된 1970년대까지는 백제역사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도 결여되어 있었고, 또 백제문화의 실체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배

경하에 출발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은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재판일 뿐 다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역사나 백제의 문화는 신라사의 전개과정, 그리고 신라의 문화와는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아서 양자의 문화를 서로 동일한 잣대로 간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¹⁾ 예를 들어, 신라는 건국에서 멸망까지 수도가 줄곧 경주에 위치해 있었지만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다시 웅진에서 사비 등 두 번이나 수도를 옮겼고, 존속 기간도 신라는 약 1,000년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백제는 약 700년간에 불과하다. 신라는 백제 역사의 절반 정도를 더 존속한 셈이다. 더구나 신라가 더 존속한 이 300년간은 단순한 300년이 아니고 신라문화와 백제문화, 그리고 고구려문화가 합쳐진 시기, 즉 신라문화라기 보다는 삼국문화라고 부르는 쪽이 타당한 문화가 형성된 시기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신라문화의 대부분은 바로 이 통일신라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또한 백제는 삼국의 치열한 통일전쟁 과정에서 패망한 나라이다. 신라 역시 패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화적 전통만큼은 뒤이어 건국된 고려 왕조에 그대로 이어진 반면 백제는 완전히 패망되어 문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백제 멸망 후 300여 년이 지난 고려초에 백제계 양식의 석탑이 백제 故地에

1) 윤용혁, “백제문화권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pp.75-76.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쪽이 아닌 백제와 신라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뚜렷이 드러난다.

이처럼 양국은 역사의 전개 과정이나 문화배경에 있어 많은 부분 서로 차이가 있다. 양국 사이의 역사 전개과정이나 문화배경이 상당부분 서로 상이하다는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문화권의 설정 범위와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에 있어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과 서로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라문화권의 재관으로써의 백제문화권 개발은 실제 백제의 역사나 문화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연장이거나 재관이 아닌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사업은 정확한 백제사, 백제문화의 실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시행된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사업의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원에서 개최한 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백제사와 백제문화의 연구 현황,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백제사 연구의 현황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백제사의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폭과 깊이를 날로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분단 후 남쪽에서는 신라사 위주의 삼국시대 연구가 진행되고, 북쪽에서는 반대로 고구려사 위주의 역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초기에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 학자들이 백제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백제에 대해서 기록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별다른 이유없이 불신한다든가, 혹은 ‘백제사라는 것은 임나일본부의 지배하에서 타율적으로 유지된 역사’라고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百濟史像을 정립하는데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었다.²⁾ 이러한 百濟史像은 일제시대 초기에 형성된 이후³⁾ 약간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인 학자들의 백제사 인식에 대한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⁴⁾

2) 申澄植, “日本學界의 研究成果와 問題點”, 百濟史, 梨花女大出版部, 1992.

3) ① 津田左右吉,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8輯, 1921, pp.128-132.

② 今西龍,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1934.

따라서, 해방 후 우리 학계에 주어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백제의 역사를 시정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百濟史像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었다.

먼저, 김원룡은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에 남아 있는 풍납동 토성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종래에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빙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⁴⁾ 이러한 견해는 그 때까지 일본인 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백제사를 연구해 오던 우리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백제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 견해가 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 출토 지석을 통해서 다시한번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이 입증됨에 따라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천관우와 이종욱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수확이었다.⁵⁾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제 皇國史觀의 관념적 무기였던 임나일본부 자체의 허구성도 밝혀지게 되었다. 즉, 임나일본부란 가야지방에 파견된 백제의 군사령부와 같은 성격의 기구였다는 주장이나⁶⁾ 임나일본부란 백제가 설치한 機關이나 그곳에 파견된 官人이 일본계 백제관료로써 大和政權의 氏姓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日本府가 되었다는 주장⁷⁾ 등이 그것이다.

해방 후 전개된 백제사에 대한 연구 결과 이와 같이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百濟史像이 왜곡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올바른 百濟史像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백제의 건국신화를 재해석하기도 하고,⁸⁾ 백제의 국가발전문제⁹⁾와 백제 성립의

4) ①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1978.

② 鬼頭清明, 任那日本府の検討, 1976.

5) 金元龍, “三國時代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輯, 1967.

6) ①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집, 1976.

② 이종욱, “백제 초기사 연구자료의 성격”, 백제연구, 17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6.

7) 千寛宇, “復元 加耶史(下)”, 文學과 知性, 9-1, 1977, pp.110~117.

8)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1985, pp.96~194.

9) ① 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圖”, 國史館論叢, 13輯, 1990.

② 盧明鎬, “百濟 建國神話의 原型과 成立背景”, 百濟史의 理解, 1991.

10) ①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輯, 1976.

② 盧重國, “百濟國의 成立과 發展”, 震檀學報, 60輯, 1985.

③ 李道學, “百濟의 起源과 國家形成에 關한 再檢討”, 韓國古代國家의 形成, 1990.

④ 李基東, “百濟建國史의 2·3問題”, 百濟研究, 21輯, 1990.

역사적 배경,¹¹⁾ 그리고 백제와 마한과의 관계¹²⁾ 등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백제 왕실의 왕위계승문제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고,¹³⁾ 한성에서 웅진으로,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가 이동함에 따라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웅진시대의 지배세력¹⁴⁾과 사비시대 지배세력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¹⁵⁾

아울러,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좌평제에 대한 연구¹⁶⁾와 지방제도의 변천에 대한 연구¹⁷⁾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의 건국과 성장, 그

리고 왕권의 專制化에 이르는 일련의 백제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백제사상의 확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백제사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의 대외관계¹⁸⁾와 불교사상¹⁹⁾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 동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던 白江轉役²⁰⁾과 周留城의 위치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²¹⁾

그러나, 아직도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11) ① 金元龍, “百濟 建國地로서의 漢江下流地域”, 百濟文化, 7·8合輯,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75.

② 申澄植, “韓國古代史에 있어서의 漢江流域의 政治·軍事的 性格”, 鄉土서울, 41號, 1983.

12) ① 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輯, 1987.

②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輯, 1987.

13) ① 李基白, “百濟 王位繼承考”, 歷史學보, 11輯, 1959.

② 李基東, “百濟 王室의 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輯, 1981.

③ 盧重國, “解氏과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 百濟의 成長”, 金哲培博士華甲 紀念論叢, 1985.

④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 檢討”, 韓國史研究, 45輯, 1984.

14) ①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 9輯, 1978.

② 梁起錫, “熊津時代 百濟 支配층 研究”, 史學志, 14輯, 1980.

15) 盧重國, “四世紀時代 百濟 支配體制的 變遷”, 韓浩勛博士停年紀念論叢, 1981.

16) 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 45輯, 1978.

17) ① 盧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邊太燮博士華甲論叢, 1985.

② 權五榮, “4世紀 百濟의 地方統制方式 一例”, 韓國史論, 18輯,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③ 金英心, “5~6世紀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輯,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④ 朴賢淑, “百濟 初期의 地方 統治體制研究”, 百濟文化, 20輯, 1990.

⑤ 金周成, “百濟 地方統治組織의 變化와 地方社會의 再編”, 國史館論叢, 35輯, 1992.

18) ①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대하여”, 白山學報, 3號, 1967.

②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11號, 1971.

③ 李明揆, “百濟의 對外關係에 관한 試論”, 史學研究, 37號, 1983.

④ 俞元載, “百濟略有遼西 記事의 分析”, 百濟研究, 20輯, 1989.

가장 절실한 문제는 부족한 문헌기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의 접목인데, 그러한 문제 이외에도 백제 초기 都城의 위치 문제를 비롯하여 백제와 百支國과의 관계, 大成 8族의 성격, 중앙과 지방관계,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益山別都問題, 周留城의 위치 등이 미해결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백제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백제문화권의 설정과 개발방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다.

III. 백제유적 조사의 현황

백제사에 연구와 마찬가지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도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이 때의 조사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일본 고대문화의 원류를 찾고, 나아가 문헌사 연구에서 획득한 한국사의 타율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방과 무령왕릉의 발

견이라는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일제시대의 조사는 일본인들이 독점하였는데,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부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능산리 고분군과 부소산성, 나성, 성흥산성 등이 조사되었는데, 능산리 고분군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성곽유적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²⁰⁾ 이처럼, 이 때 조사된 유적들은 모두가 백제고분이나 백제 성곽 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었지만 조사 당시에는 조사 자체가 극히 일부만에 그쳤기 때문에 유적의 확인에 그쳤을 뿐 별다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서 조사의 대상과 조사지역이 확대되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1927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32년에 있었던 송산리 6호분에 대한 조사로 절정을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을

19) ① 金煥泰, “百濟의 觀音思想”, 馬韓·百濟文化, 2輯, 1978.

② 安啓賢, “百濟 佛敎에 관한 諸問題”, 百濟研究, 8輯, 1977.

③ 洪潤植, “百濟 帝釋信仰考”, 馬韓·百濟文化, 2輯, 1978.

④ 柳南相, “百濟思想의 研究”, 百濟研究, 特輯號, 1982.

⑤ 金三龍, “百濟의 彌勒信仰”,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1983.

20) ① 卞麟錫, “7世紀 中葉 白江口戰을 둘러싼 東아시아의 國際情勢”, 人文論叢, 4호, 1993.

② _____, “白江口戰爭을 통해서 본 古代 韓日關係의 接點”, 東洋學, 24輯, 1994.

21) ① 全榮來, 周留城·白江 位置 比定에 關한 研究, 부안군, 1976.

② 朴聖興, 洪州 周留城考, 1994.

③ 金在鵬, 百濟 周留城의 研究, 연기군, 1995.

22) 谷井濟一, “扶餘郡古蹟調査略報告”,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마침내 체계적인 백제고분 연구에까지 이르게 된다.²³⁾ 이때 이루어진 백제고분에 대한 연구는 해방 후 우리 학자들의 고분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²⁴⁾ 별다른 수정없이 현재까지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⁵⁾

비슷한 시기에 백제 寺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백제 사지에 대한 조사는 부여 군수리 사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되었는데,²⁶⁾ 당시에는 간단한 조사에 그쳐 전체적인 가람배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동남리 사지, 서북사지, 정림사지 등 백제사지 발굴 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백제 寺址연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일제시대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고분, 성곽, 사지 등 역사시대 핵심유적 전반에 걸친 것이기는 하였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공주와 부여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오히려 백제문화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50년대와 60년대의 백제유적 조사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정치적

인 혼란속에서 유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1966년에 있었던 공주 시목동 고분조사²⁷⁾와 1969년에 있었던 서산 명지부락 고분조사²⁸⁾ 등은 이 시기에 조사된 유적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이들 조사는 종래에 알고 있었던 백제고분의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분이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의 조사 범위를 종래의 공주·부여에서 그 밖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의 참모습을 살피는데 실제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를 줌과 동시에 백제문화권 설정의 여러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1970년대는 무령왕릉의 발굴로 시작되었다. 무령왕릉의 발견은 그 때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백제사의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백제유적의 조사도 새로운 轉機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무령왕릉 발견 이후 70년대에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

23) ① 輕部慈恩, “公州における百濟古墳”, 考古學雜誌, 24-3, 1934.

② _____, 百濟遺蹟の研究, 1971.

24) ① 安承周, “百濟古墳의 研究”, 百濟文化, 7·8合輯, 1975.

② 姜仁求, 百濟古墳研究, 一志社, 1977.

25) ① 小田富士雄, “百濟古墳の系譜”, 馬韓·百濟文化, 7輯, 1984.

② 李南奭, 百濟石室墳研究, 學研文化社, 1995.

26) 石田茂作, “扶餘軍守里寺址發掘調査”,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936.

27) 安承周, “公州 百濟古墳 樣式의 一例”, 百濟文化, 1輯, 1967.

28) 金永培·韓炳三, “大山面 百濟土墳墓 發掘報告”, 考古學, 2輯, 1969.

다. 서울 잠실지구 백제유적의 조사, 1974년부터 시작된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의 조사, 김제 벽골제에 대한 조사 등 오히려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국토개발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개발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구제발굴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부터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공주의 경우 공산성에 대한 조사가 이후 약 10년 동안 이루어졌고,²⁹⁾ 부여에서는 부소산성³⁰⁾과 추정 왕궁지를 대상으로 연차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논산 표정리 고분군과 두곡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어졌고, 이는 논산 육곡리, 서천 칠지리, 홍성 성호리, 공주 송학리·남산리, 그리고 공주시내에 자리하고 있던 웅진동 보통골, 신기동·금학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에까지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종래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안고 있던 지역적인 편중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발굴에서와 같이 시간에 쫓기면서 성급하게 조사를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던 조사를 진행시킴으로써 필

요한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백제유적의 조사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그을 만한 것이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토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도 대상과 범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된 범위와 대상을 통해서 백제문화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에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한 눈에 받았던 백제금동대향로의 경우,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며, 향로가 발견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새롭게 확인된 능산리 고분군은 공설운동장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그런가 하면, 서천 오석리 유적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며, 공주 정지산 유적과 분강 저석리 고분군은 백제큰길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고, 대전 월평동 산성은 정수장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유적의 조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견되는 백제유적의 종류도 다양해지

29) ① 安承周, 公山城, 公州師大 百濟文化研究所, 1982.

② 安承周·李南奭, 公山城推定王宮址發掘調查報告書, 公州師大博物館, 1988.

③ _____, 公山城 城址發掘調查報告書, 公州師大博物館, 1990.

④ _____, 公山城 建物址, 1995.

30) ① 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 1994.

② 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發掘調查報告書, 1996.

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분 위주의 조사, 고분 위주의 연구만 진행되어 온 종래의 조사·연구에서 벗어나 조사·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둘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다양한 유적의 존재를 통해서 백제문화의 실체에 좀더 가깝게 접근했다는 데 또 다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처럼 조사가 거듭될수록 백제유적의 종류와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문화권 설정과 개발의 방향에 많은 사실을 시사해 준다. 지금까지 백제유적이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사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유적, 다양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적의 조사수가 증가하면서 부족했던 백제유적이 양적으로 팽창함과 동시에 종래에 불완전한 이해에 그쳤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고 깊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백제문화권 개발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유적의 빈약성, 고증의 어려움, 자료의 한계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월등히 많으며,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실제 백제사의 연구에 접목시킬 수 없다는 단점도 엄연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IV.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후반이었다. 70년대 초반에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발이 이렇다 보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개발의 방향이 전혀 정리되지 못한채 개발사업은 진행되고 말았다.

백제는 신라와 달리 지역이나 시대적인 한계가 뚜렷하지도 못하고, 또 역사나 문화배경에서 차이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을 그대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출발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 저기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원래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의 4지역을 중심으로 79~8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5개의 문화재를 정비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는 서울의 문화재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서울지역만을 따로 분리해서 1985년부터 실시된 古都民族文化遺蹟 綜合復元計劃에 따라 서울지역 위주의 조사와 정비사업을 벌여 나갔다. 즉, 공주, 부여, 익산지역과는 달리 백제유적의 조사와 정비를 위한 예산안이 새롭게 정해졌고, 이 때문에 공주, 부여, 익산 등지는 계획된 조사, 계획된 정비·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나

서는 이제 정반대로 공주, 부여, 익산 등지의 백제 유적에 대해서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질 뿐 서울지역에서는 이렇다할 조사와 정비·복원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권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공주, 부여, 익산 등지로 범위가 좁혀지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서울지역은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권의 범위와 개발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문화권의 범위와 개발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백제문화권을 실제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할 뿐이며, 개발사업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예측까지 가능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문화권 개발이라는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유적 주변을 정화·정비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비 중 유적 주변의 사유지 매입과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유적 조사비용이다. 결국 사업의 주제는 광역의 문화권 정비 또는 개발이지만 실제 내용은 문화재의 정비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권 개발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권 개발과 거리가 먼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백제문화권을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은 물론이고, 개별 유적에 대한 정비·개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산성이나 부소산성은 또 어떻게 정비·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사업이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제문화권 전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개개 유적의 활용방안도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V.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사의 연구와 백제유적의 조사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백제사 인식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목표와 방법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이 확고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개발사업의 범위와 방향은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 개발사업의 범위는 정해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면 당연히 개발사업의 방향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만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정한 기간내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백제사 및 백제문화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첫번째 제안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백제사 혹은 백제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개발 방향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사, 혹은 백제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그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최대한으로 살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재판으로써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진다.

양국은 각각 독특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에 맞는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라문화권의 유적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데 비해 백제문화권의 유적들은 충남 도내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백제는 신라에 비해 문화유적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 문화유적이 많은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킨다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한군데로 유적이거나 유물을 모아 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 같다. 신라문화권의 문화유적이 경주에 집중해 있는 것이나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적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은 바로 신라와 백제의 역사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적이 좀 빈약해 보인다고 해서, 시선을 끌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합집산을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백제사, 혹은 백제문화의 특징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역시 공주, 부여 등과 같이 당시의 수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백제유적이 분포하는 충남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라문화권과 다른 백제문화권의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백제유적은 86년과 88년을 앞두고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주나 부여보다도 앞서는 개발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에서도 공주나 부여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

부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공주나 부여에 버금가는 투자를 통해서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고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남도내의 균형잡힌 발전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시까지 밝혀진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의 실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어디까지나 백제문화의 재현이 본래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 개발사업의 범위, 추진방침, 목표 등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의 실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백제사 내지 백제문화의 실체라는 것은 개발사업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거기에 부합되는 개발의 목표와 추진방침이 수정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실체를 찾는 작업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작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발굴 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훌륭히 보존되어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구현해 주기 때문인데, 그러한 가치구현은 그 자

체로써 보다는 일정한 개발을 전제로 한다.

물론, 개발의 정도가 지나치면 문화재 본래의 성격이 변질되어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혐오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선을 긋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변에 있는 다른 자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즉, 공주와 부여가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한다면 인접한 계룡산지역은 생태환경지역이며, 서산, 태안지역은 해양관광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관광도시로의 개발이라고 해서 꼭 그 안에서의 개발과 보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개발과 보존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개발사업에 의해 빚어질 지도 모르는 지역적인 편중성을 해소하고 충남도내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연결되는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린충남**